

■ 특특뉴스

광주은행, ‘스마트 자판기’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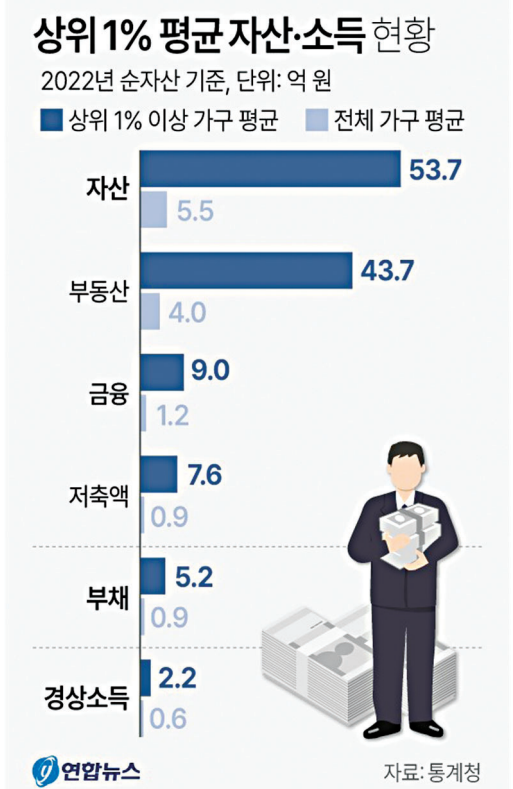
광주은행이 오는 6월 30일까지 ‘스마트 (SMART) 자판기’ 이벤트를 실시한다.

스마트 자판기 이벤트는 최근 1년 이내에 광주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개인뱅킹 앱, 모바일웹 등 비대면 채널로 예·적금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고객은 비대면 채널로 ▲적금 월 10만원 (또는 외화적금 100달러) 이상 ▲정기예금 100만원 (또는 외화예금 1,000달러) 이상에 가입하면 된다. 고객은 가입 후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 이벤트 메뉴의 ‘스마트 자판기’에서 원하는 경품을 선택할 수 있다. 선착순 4,000명의 고객에게 매주 수요일 경품을 지급한다.

이벤트 참여는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에서만 가능하다. /오지현 기자

■ 그래픽 경제



순자산 상위 1%, 부동산 80% 이상

지난해 순자산이 32억8,000만원을 넘으면 국내 순자산 상위 1%에 속하는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의 자산 중 80% 이상은 부동산이었으며, 주식 등 직접 투자 비율이 전체 가구 평균의 2배가 넘었다.

2021년(29억원)과 비교하면 순자산 상위 1%의 기준선은 3억7,920만원 올라갔다.

지난해 상위 1% 안에 드는 가구의 평균 자산은 53억6,882만원이었다. 이중 부동산 자산이 43억7,249만원이었다. 상위 1% 가구의 부채는 평균 5억1,666만원이었다.

‘상공의 날’ 이승주 기광산업 대표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양우천 오비맥주 광주공장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표창

김성철 한국그린포스펌프 이사

제50회 상공의 날을 맞아 광주지역 3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이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경제 위기 극복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승주 기광산업 대표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양우천 오비맥주 광주공장장과 김성철 한국그린포스펌프 광주공장 이사는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이승주 기광산업 대표는 1990년 기광산업에 입사해 30년 이상 차



이승주 기광산업 대표이사



양우천 오비맥주 공장장



김성철 한국그린포스펌프 이사

동차 차체부품 제조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탁월한 결단력으로 급변하는 경영여건 속에서도 매출액과 수출액을 증대시키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한 국내 자동차 부품 품질향상과 수급 안정화를 통해 대한민국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양우천 오비맥주 광주공장장은 한국의 식문화에 대

하는 국내산 쌀을 원료로 사용한 한국형 맥주를 만들어 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맥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직원 친화적 조직문화 구축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건전한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ESG경영을 적극 추진한 점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표창을 수상한 김성철 한국그린포스펌프 광주공장 이사는 지난 20년간 펌프 제조기업 엔지니어로서 국내 업계 최초로 고효율 펌프 인증을 획득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국내 펌프산업 발전과 국가 에너지 절감에 이바지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창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수상자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광주상회는 지역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가운데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내 더 많은 상공인들이 노고를 격려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한상의에서 진행된 제5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 대표와 국내·외 상공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상공의 날’은 상공업 진흥과 상공인들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정부 기념일로 매년 3월 셋째주 수요일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성장·발전을 위한 뚜렷한 공로가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상공인들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한다. /이연수 기자

투명성·고급화... ‘지주택’ 아파트 성공 견인

북구 신용동 현대지역주택조합 주목 힐스테이트 신용 더 리버 12월 준공 사업초기 토지확보·금융문제 해결 프리미엄 특화 등 투자가치 제고



‘힐스테이트 신용 더 리버’ 조감도.

사업 추진에 나선 현대지역주택조합은 주택조합사업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토지 확보와 금융 문제, 조합원 모집 등을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일찌감치 해결하고 착공에 들어가는 등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주택조합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조합원 이익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최우선으로 두고, 투명한 사업 운영과 조합-현대건설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추가분담금

부담 해소와 고급화에 주력해 조합원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등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조합은 프리미엄급 아파트 건립을 위해 주차장을 모두 지하화 하고, 지상 공간에 산책로와 놀이, 휴식 공간 등을 크게 늘렸다.

주거동 바닥 면적이 단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도 12%대로 낮춰 동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했으며, 아파트 내부마감재·조경·외벽·경관조명·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 공용부·단지내 문주·동출입구 등을 특화해 차별성을 뒀다.

이밖에 아파트 옥상에 친환경 태양광 패널을 설치, 향후 입주민들의 공동관리비 부담을 덜도록 했다.

백성기 신용동 현대지역주택조합장은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을 만들고 일반 분양시 합리적인 분양가를 제시해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모두에게 더욱 쾌적한 단지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신용 더 리버’는 지하 2층~지상 29층, 19개 동 총 1,647세대로 조합원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74~135㎡ 206세대는 일반에 공급된다.

일반분양은 올해 하반기 중 진행된다. /이연수 기자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남구와 함께 내 일(JOB)을 잡(JOB)아 보자!

● 취업상담센터

- 취업연계종합서비스 (구인구직등록,상담,취업알선)
-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 일자리박람회

- ON-OFFLINE 박람회
- 맞춤형 취업컨설팅
- 구인기업정보제공

● 공공일자리 추진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생계안정
- 더 나은 일자리로 가는 디딤돌

광주광역시남구 취업상담센터 062. 607. 2672